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나 존재물로 만족하지 못하면, 네가 그것을 원하는 대로 더 만들고 개발하여라.
2. 네가 얻은 것이 다른 것들보다 어떤 점이 더 좋은지, 저울에 달아보고 자로 재 보아라. 더 좋으면, 최고의 것이다.
3. 자기가 원했어도, 흠 없이 완전한 것은 세상을 다 뒤져야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자기 주관권에서, 있는 데서 주신다.
4. 하나님은 지구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고, 자기 주관권에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원하던 것이 최고로 다 갖춰져 있지 않기도 하다. 그러므로 만들고 개발해서 써라.
5. 어떤 것은 자기 주관권에서 얻은 것인데,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것이기도 하다.
6.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7. 하나님이 보낸 자는 그 생각도, 마음도, 행실도, 차원도 다르다. 그가 온전한 것을 말해도 사람은 깨닫지 못하나니, 육에 속했기 때문이니라. 깨닫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8. 사람이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께 만족하게 해 드

릴 것이 있다.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만족하신다.

9. 하나님과 성령님께 모두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만족하게 여기고 받으신다.

10. 하나님과 성령님이 해 주신 것을 깨닫고 볼 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만족해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